

**회비납부**

[단체회원] 삼부토건(주), 강구수산업협동조합  
 [개인회원] 배평암, 전충남

**화 축**

▶ 문상진(어장본부)님의 영애 희선양  
 - 일시: 2013년 3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군산아리울웨딩홀2층 사랑홀(전북 군산시 조촌동 770)  
 - 문의: 063-453-3200

선 명	기 간	지 역(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14~25	격포, 말도	백남춘	011-247-5592
어항 902호	4~23 25~30	선박수리 달리도, 외달도	이일구	010-7175-5590
어항 903호	11~23	풍남, 신촌	조동식	011-230-5591
어항 904호	7~22	서성, 해동, 특암	황원배	011-232-5596
어항 905호	1~20	선박수리	하용만	011-247-5593
어항 906호	4~15	죽변, 오산	김성훈	011-247-5594
어항 907호	1~20	선박수리	최일선	011-243-5597
크린오션1호	12~21	안흥, 오천, 삼시도	김용익	011-243-5590
크린오션2호	4~15	미조	박주종	010-6393-5596

**어촌 View Point 100 ② 인천 옹진 - 선재도**

영종거리  
 차남매!

갯벌에 걸리는  
 신비한 바닷길  
 바지락 고장 선재도



▲ 영흥선재 목섬  
 ● CANON EOS 5D MARK II ● 초점거리 40mm  
 ● 6월 28일 pm 5:20 ● 촬영모드 AV / ISO125  
 ● 셔터스피드 1/200초 ● 조리개 F10 ● 화이트밸런스 Auto

간만의 차이가 큰 서남해안에는 '모세의 기적'으로 부르는 곳이 많다. 선재도의 목섬 바닷길도 물때에 따라 모랫등이 잠기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신비의 바닷길'이다. 물이 찼을 때는 분명히 섬인데, 물이 빠지면서 물로 변하는 자연 현상을 사람들은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조금 떠나 사리 떠나 물이 들고 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바닷길 촬영은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고 많이 나가는 사리 때를 택하는 것이 좋다. 바닷길이 넓고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선재도에 처음으로 촬영을 왔는데, 그때가 마침 만조 때라면 목섬과 이어지는 바닷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럴 때는 물이 다 빠진 간조 때에 카메라 앵글을 잡아놓고 물이 들기를 기다려 촬영한다. 바닷길 촬영은 물이 다 들거나 다 나가기 전부터 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아 신비롭게 보이기 때문이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 촬영시간이 일몰 무렵이면 환혼 햇살이 더욱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어 준다.

여기도 좋아요! 선재·영흥도를 육지와 연결시킨 주인공, 영흥화력발전소(한국남동발전)가 이곳에서 멀지 않다. 발전소 초입에는 있는 '에너지 파크'도 좋은 구경거리. 어린이를 위한 관람장도 있어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 한국남동발전(주) 홈페이지(www.kosep.co.kr)를 통해 예약하면 발전소와 에너지파크의 관람이 가능하다.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의 소사나무 군락지, 용담리 낚시터, 장경리 해수욕장도 가 볼만하다.

신나게 즐겁게! 선재어촌체험마을에서는 바지락 캐기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어촌계 갯벌열차를 타고 10여 분 갯벌로 들어가면 호미와 들통을 나누어 준다. 현장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갯벌을 뒤집으면 동죽이나 바지락이 많이 나온다. 운이 좋으면 낙지도 잡을 수 있다. 갯벌 체험료는 1인당 8천원. 단체나 개인이 미리 예약을 하고 선상낚시도 즐길 수도 있다.

배꼽시계 꼬르륵! 바지락의 고장 선재도에 왔으면 선재 명물 바지락 칼국수를 먹어 볼 일이다. 선재 갯벌에서 잡아낸 싱싱한 바지락으로 끓여 낸 칼국수는 감칠맛이 더 하다. 생선회나 매운탕, 낙지요리도 맛이 뛰어나다. 살아있는 갯벌에서 막 잡아올린 수산물로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좀 더 다양한 수산물 맛을 즐기려면 영흥대교 건너 영흥수협 직판장을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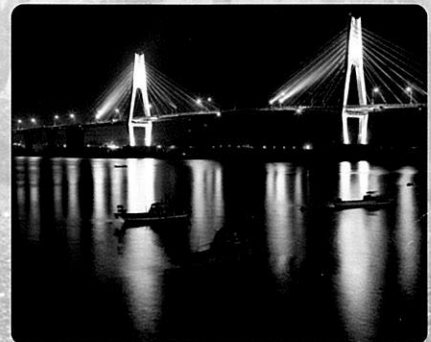
● 문의: 영흥수협 직판장 032-882-1348

쉬어 가고 싶을때! 선재도와 영흥도에는 관광어촌답게 음식집과 모텔,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숙박에는 어려움이 없다. 민박도 가능하다.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어촌체험마을에 문의하면 된다.

● 문의: 선재어촌체험마을 032-888-3110



▲ 갯벌체험



▲ 영흥대교 야경